

38. <보기>의 ㉠~㉢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

〈보 기〉

[영민, 평화가 학교 앞에 함께 있다가 지혜를 만난 상황]

영민: 너희들, 오늘 같이 영화 보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?

평화: 응, ㉠ 6시 걸로 세 장 예매했어. 근데 너, 어디서 와?

지혜: 진로 상담 받고 오는 길이야. 너흰 안 가?

평화: 나는 어제 ㉡ 미리 받았어.

영민: 나는 4시 반이야. 그거 마치고 영화관으로 직접 갈게.

지혜: 알겠어. 그럼 우리 둘이는 1시간 ㉢ 앞서 만나자. 간단하게 저녁이라도 먹고 거기서 바로 ㉣ 가지 뭐.

평화: 좋아. 근데 ㉤ 미리 먹는 건 좋은데 어디서 볼까?

지혜: 5시까지 영화관 정문 ㉥ 왼쪽에 있는 분식집으로 와.

평화: 왼쪽이면 편의점 아냐? 아, 영화관을 등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구나. 영화관을 마주볼 때는 ㉦ 오른쪽 맞지?

지혜: 그러네. 아참! 영민아, 너 상담 시간 됐다. 이따 늦지 않게 영화 ㉧ 시간 맞춰서 ㉨ 와.

- ① ㉠과 ㉡은 가리키는 시간이 상이하다.
- ② ㉢과 ㉤은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를 가리킨다.
- ③ ㉥과 ㉦이 가리키는 시간대는 ㉧을 기준으로 정해진다.
- ④ ㉣과 ㉨은 이동의 출발 장소가 동일하다.
- ⑤ ㉤과 ㉦은 기준으로 삼은 방향이 달라 다른 곳을 의미한다.

39. <학습 활동>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? [3점]

〈학습 활동〉

부사어는 부사, 체언+조사, 용언 활용형 등으로 실현된다. 부사어로써 수식하는 문장 성분은 서술어, 부사어, 관형어 등이다. 일례로 ‘차가 간다.’의 서술어 ‘간다’를 수식하기 위해 부사 ‘잘’을 부사어로 쓰면 ‘차가 잘 간다.’가 된다. [조건] 중 두 가지를 만족하도록, 주어진 문장에 부사어를 넣어 수정해 보자.

[조건]

- ㉠ 서술어를 수식하기 위해 ‘체언+조사’를 부사어로 쓴 문장
- ㉡ 서술어를 수식하기 위해 용언 활용형을 부사어로 쓴 문장
- ㉢ 부사어를 수식하기 위해 부사를 부사어로 쓴 문장
- ㉣ 관형어를 수식하기 위해 부사를 부사어로 쓴 문장
- ㉤ 관형어를 수식하기 위해 용언 활용형을 부사어로 쓴 문장

조건	수정 전 ⇨ 수정 후
① ㉠, ㉡	영미는 그 일을 처리했다. ⇨ 영미는 그 일을 원칙대로 깔끔히 처리했다.
② ㉠, ㉢	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. ⇨ 전혀 딴 사람이 그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했다.
③ ㉢, ㉤	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. ⇨ 그를 무척대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.
④ ㉤, ㉥	화가가 굵은 선을 쭉 그었다. ⇨ 화가가 조금 굵은 선을 세로로 쭉 그었다.
⑤ ㉤, ㉦	웃는 아기가 귀엽게 걷는다. ⇨ 방긋이 웃는 아기가 참 귀엽게 걷는다.

[40~43] (가)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이고, (나)는 동아리 누리집이다.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

진행자: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? ‘오늘, 상식’ 열 번째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20여 년간 대학에서 어문 규범을 가르쳐 오신 김◇◇ 교수님을 모셨습니다.

전문가: 안녕하세요?

진행자: 오늘 짜장면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,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.

전문가: 우리가 맛있게 먹는 짜장면이, 한때는 자장면만 표준어로 인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?

진행자: ㉠ 아, 예전에 그런 내용을 본 적 있어요.

전문가: 네, 전에는 자장면만 표준어였죠. ㉡ 짜장면은 2011년 8월 31일에서야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었습니다.

진행자: 그런데 표준어로 인정되기 전에도 짜장면이 흔히 쓰이지 않았나요?

전문가: 그렇습니다. 과거의 신문 기사를 보시죠.

<p>○○일보 1999년 ○○월 ○○일</p> <p>자장면의 변신은 무죄 고급화를 통한 차별화 전략</p> <p>*****</p> <p>*****</p> <p>*****</p> <p>*****</p>	<p>△△신문 1999년 ○○월 ○○일</p> <p>맛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 짜장면에 담긴 추억을 아시나요?</p> <p>*****</p> <p>*****</p> <p>*****</p> <p>*****</p>
---	--

진행자: 음, 화면을 보니 같은 해에 나온 기사인데도 자장면과 짜장면이 둘 다 쓰이고 있네요?

전문가: 네, 보시는 자료 이외에 다른 신문 기사에도 짜장면이라는 표기가 나타납니다. 비교적 어문 규범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신문에서 짜장면을 사용할 정도로, 일상에서 짜장면이 널리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무렵에 복수 표준어 선정을 위해 실시한 발음 실태 조사에서도, 비표준어였던 짜장면이 표준어인 자장면에 비해 세 배 이상 많이 사용된다고 나타났습니다.

진행자: ㉢ 그렇다면 어문 규범이 언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군요.

전문가: 당시 언중들이 일상에서는 어문 규범과 달리 짜장면을 흔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.

진행자: 그러면 사람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반영하여 짜장면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게 된 거네요. 시청자 여러분께서 내용을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?

전문가: 네,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짜장면을 자연스럽게 사용해 왔고 자장이라 표기하면서도 짜장으로 발음해 온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짜장면이 자장면의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진행자: 그럼 짜장면처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서도 현재는 표준어가 아니어도 언젠가 표준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말이 있겠군요.